朝鮮日報 二十日夕刊

時評

富의米國 (一)

×

千六百萬口의電話加入者와 千八百萬臺의自動車使用者를 가진 北米合衆國의 物質的 勢力은 이미그世界에冠絶하는바 잇슴을想留케한다 每日 六千萬通의 電話通話가잇고 自動車가每日달어나는距離를 合하면 地球를二萬周回하는 哩數에達한다하니 그所有의 量이偉大할도 놀래려니와使 用의量의偉大할도다시놀랠만 하다

×

電話機一箇에對한 人口는 七人에當한다하며 自動車로 消費되는「고무」는六億「폰드」 이오「까소린」은六十億「갈론」 을넘고 自動車의通行을爲하 야 國中에修補하는道路의費

用이 三十億圓이라하니 이 러한偉大한交通機關을가진그 들의富가엇덩나는것은 勿論 이어니와 이러한偉大한交通 機關을 必要로하도록 繁昌 하고 緊張한生活을하여야하 게된 그들의社會가 더욱偉 大한것을놀랠뿐이다

富의米國 (二)

×

『라디오』의一年間의裝置販 賣額이 六億圓以上으로다른 家具類에對한三分一의額에消 費이오 一九二一年以來四年 間의『라디오』事業은二十億圓 以上으로增加하엿다 米國의 鐵道가全世界鐵道延長總哩數 의 五分一에 相當하도록長 距離에達한것은 識者의記憶 하는바어니와 二十萬哩에서 친電車가 一個年約二十億人 餘의 乘客을運輸하고 汽車 의運輸乘客은 一個年四百七 十億人에達한다한다 全世界 人口의約三十倍에相當한數 字이다

×

三十萬을算하는 各種製造 會社는 無慮八萬一百億圓의 資本을運用하며 製品價格이 一千二百億圓에達하고 이工 業界의事業으로 衣食하는者 가 九百萬人을超過하며 그 들의一年間의所得이 三百億 圓에達하야 製品의優良함과 收入의豐裕함은 또한世界에 冠絶하는바잇다 米國의富가 世界第一일뿐아니라 米國人 의意氣가 또한世界第一로나 아감이必然한일이다

富의米國 (三)

×

昔者羅馬人의武强이 자못 天下를征服하게되엇고 그의 殷富함이 또한天下에冠絶하 엿다 羅馬市의雄偉壯麗함이 天下를威壓함이잇슴뿐아니라 天下의道路 모다羅馬市에集 中하는偉大量이두엇섯다 그 리고 農民族으로分據成된奴 隸의무리는 全羅馬國의 들 과市街를채웟섯다 殷富와繁 榮이잇는곳에 반듯이또罪惡 과怨抑이잇는것이다 이제米 國오히려二千萬의黑人과 幾 萬의紅人을包容하엿다 彼等 은自由人이오 그러나奴隸인 者이다 그리고米國에社會運 動이닐어나지안는것은一特色 이다

×

各國의勞働者가 모다蹶溺 한貴金國의新王이되기를想望 하니 一原因이오 各國의勞 働者가 言語風俗上으로圓滿 히團結되지아니하니 一原因 이오 그리고一個의無產勞働 者로서 오히려『카네기』를한 等의巨富를이두니 또一原因 이다 이러한諸原因이잇서서 米國의富豪들로 오히려高枕 安臥하게하는바잇스니奇哉

武器彈藥買收
露墺交涉進行說
墺國武器製造機械 全部를露國이買收

(우인十八日發) 墺地利政府及同國民間諸會社와쏘베트政府間에墺地利全國의武器彈藥製造機械類全部를露西亞에서買收하라는 交涉이進行中인데쏘베트政府는彈藥及爆彈을製造하는大規模의模範的工場數個를完成하라고焦慮中이며且우인砲兵工廠의設備全部 並후이미아만트의宏大한다뉴푸河造船所를買收할準備가잇다고 報道하더라

土地所有借地禁止
東洋人壓迫을開始

(발구파十八日發) 『쇄리젓슈든비아』州農民協會는十八日東洋 人의土地所有及借地禁止를『오아다와』政府에要求하엿더라

土시新協定調印
兩國間의모든懸案一掃

(앙구라十九日電) 佛領시리아總督주베넬氏와土耳其外相『데 픽』은루시도베』氏는新協定에調印하엿다이로부터『시리아』의境界는 土耳其의主張을容納하야改正하는等兩國間에모든懸案을一掃하엿 다

獨逸의聯盟加入
準備整頓을發表

(나우엔十八日電) 獨逸의國際聯盟加入에橫在한最後의障碍物 은다除却되고加入의儀式順序도整頓되엿슴을昨夜獨逸政府는公表하 얏는데國際聯盟은獨逸의加入諾否의投票를三月十日에行하라고正 式開會式은八日에行할터이더라

聯盟加入撤回
外交委員會否決

(伯林十九日發) 獨逸議會外交委員會는共產黨提出의國際聯 盟加入申請撤回決議案을否決하엿더라

露、農民救濟에
二千九百萬留支出

(莫斯科十八日發) 農村救濟 銀行은一、二、三月에亘하야農 村經濟向上及農民救濟의意味로 二千九百萬留를支出하엿는데貧 民救濟로五十萬留農村『코페라 지푸』의向上을圖하기爲하야百 五十萬留旱魃의豫備로四百萬留 凶作農民에게三百萬留의支出을 하기로하엿더라

酒皮交換
委員會가禁止

(知多十八日發) 亞比利의福 北나두임地方의住民은狩獵及毛 皮類의採取를營業으로하는데此 地方에入來한商人은 毛皮類와 『워드카』酒를交換하야住民에게 飮酒를식이는터인바『나두임』執 行委員會는命令을發하야毛皮購 買에際하야土民에게『워드카』를 提供하는것及워드카와毛皮의交換 을禁止하엿더라

上海內外綿
益益紛糾될듯

(上海十九日發) 內外綿職工 의怠業氣分은益益濃厚하게되야 會社側幹部는鳩首協議하얏스나

東三省司法機關

(奉天電) 最近의調査에依하 면東三省의司法機關은左와如함 奉天省、高等審判廳一、高等 分廳一、地方審判廳十一、地 方分廳四、吉林省、高等審判 廳一、高等分廳一、地方審判 八四、黑龍江省、高等審判廳 一、高等分廳一、地方審判廳二

奉天硬貨輸出禁止
取締는頗히嚴重하다

(某所着電) 對岸各縣商務會 는一月中旬奉天商總會長으로부 터現大洋一圓現小洋十五圓以上 의境外輸出을禁止할旨의訓令을 接한衛來警甲과連絡하야嚴重히 此取締를하는中인데寬甸縣에서 는從來大洋十圓以上及銀貨는量 의多少에不拘하고輸出을嚴禁한 다더라

某關係側談에依하면奉天票는目 下二百五十七圓假量인바이대로 推移되면不遠하야三百圓臺에落 着될念慮가잇는데如斯히되면重 貨는自然업서지겟슴으로當局은 此點에留意하야硬貨의流出을防 止하는同時에一方紙幣價値의維 持를挽回하려고境外輸出을禁止 한엿슬것이다此로因하야奉天票 로는數字的으로減縮될것이나去 來上에는큰影響이업고目下의去 來은主히爲替에左右되는狀態이 더라

奉票價値의 維持策이다

法權會議進捗
法典全部審查終了不遠

(北京十九日發) 法權會議는 米國全權스트론氏議長席에就하 야民法(但物權、親族法、相續法 等은업고僅히草案한것뿐임으로 不得已大淸律例를參考함) 民事 訴訟法大理院判決例商律適用例 等에對하야審查하고各委員 ...

日本人生死不明

(天津十九日發) 天津의北方 五、六기로永平에居住하는 某는軍事探偵의嫌疑로去十 ...

軍曹虐殺事件交涉

(北京十九日發) 天津駐屯軍 司令官小泉中將은副官을 ...

奉天兩新聞社合併

(奉天電) 오래前부터奉 ...

天警察署長이奉天新聞大陸日日 新聞의合併에對하야奔走中이엿 스나兩社共히各其歷史를有하고 ...

『스탈린』의 레닌及레닌主義論 (一〇)
金俊淵

(三) 自覺理論의批判 또는運動에잇서서의先鋒의任務

議會中心은貴院에
各派對策에腐心中

(東京電) 來年度豫算案을始로稅整案、關稅改正案等의今期 議會에잇서서의各種重要案件은최數日中에全部衆議院을通過하야貴族 院에送附하게되엿슴으로貴族院各派는重要案을내여幹部會或은政務 調査會等에서各其對策에對하야準備를研究하나特히研究를要하는 現 ...

又特色도有함으로容易히推移되지못하며니最近에具體化하야 近合倂하게되엿더라

六十日斷食比較
獨逸과伊太利斷食家
七月부터紐育市에서

(나우엔十八日放送) 獨逸의斷食家요리氏는伊太利斷 食大家고두스우이니氏等에게六十日의斷食競爭을申請하 엿슴에對하야七月에紐育에서實行할터이더라

活氣잇는肉迫戰
稅制安協案討議에

(東京電) 議會의絶頂은마침 ...

稅整問題에關하야
結論을가리함은깃부다
若槻首相談

(東京電) 若槻首相은稅制整理案은衆員會 ...

未決定豫算에對한
本黨의態度決定

(東京電) 政友本黨에서는 ...

政友黨勢擴張
政本合同主張者政友入黨

(東京電) 政本合同의四人組도大木伯의逝去에依하야水野鍊太 郞、山本悌二郎、鈴木喜三郞의三人組가되엿스나大木伯의逝去와 ...

政友의不信任案
提出期와及其形式

(東京電) 政友會는미리부터議會後半期에內閣不信任案을提出 할豫定이던바 ...

一、江木法相不信任決議案
二、岡田文相不信任案
三、財部海相不信任案

金電京電의合同이
遞信局의幹旋으로進捗

局長知事
大移動說
어느때지事實?

各樣各說

後任에는

度量衡令
裁可되엿다

兩派遣員會議
每年定例로

京城共進會開催乎

人事消息

▲戶田直溫氏(鐵道局營業課長) 新任人事次로二十日本社來訪
▲佐藤作郞氏(鐵道局參事)新任 人事次로二十日本社來訪

八面鋒

○ 獨逸斷食家와伊太利斷食大家 들은、六十日斷食比較를來七 月頃에行할터이라고、六十日 間에斷息比較나안될는지
○ 勞農聯邦에는、嗜眠病이發生 하야到處猖獗하고、또흑獨領 東亞弗加에도、此病이發生 되엿다한다 病中에는便安한病
○ 赤露가軍縮에腐心한다는電報 가잇다、軍國主義者들의、以 習付人이나아닌지?

鐵筆寫眞
어듸일어서겟소?
投稿歡迎

隧道掘鑿中慘事 同胞工夫生葬!

입구로부터근칠척되는디뎜에서 디반이문허저십수명공부가무티어

全部窒死로推定

길이 삼만 사천일백 척으로 동양뎨일의 큰 수도(隧道)라 일컷는 일본텰도성 상세선(鐵道省上細線) 청수향 대수도(淸永鄕大隧道)는 목하 삼백여명의 공부(工夫)가 밤낮을 물론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터인데 그 수도의 입구(入口)로부터 륙천팔백오십팔 척이나 되는 디뎜(地點)에서 다시 파들어가든 중 십구일 오전 두시 오십분경에 돌연히 디반(地盤)이 문허저서 근처에서 일하든 조선인과 일본인 공부(工夫) 십수명은 산채로 파뭇고 말앗슴으로 목하 다른 공부들이 온전력을 다하야 발굴하는 중이나 파무친 공부는 전부 즉사하얏슬 것이라고 추측된다더라 (전교제일면보)

死傷者는 全部朝鮮人

청수수도(淸水隧道)가 문허젓다는 급보를 접한 소뎐(沼田) 경찰서에서는 다수의 구됴대를 조직하야 현장에 달려가서 문허진 토사 배제에 노력한 결과 입항자(入坑者) 십수명 중 대개는 피난한 모양이오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은 조선사람 박룡광(朴龍廣) (四四)이며 중상자도 또한 조선사람 박학당(朴學堂) (三七)이 하사명인 바 중상자는 곳 응급수당을 하얏스나 생명을 구하기 어렵다 더라 (전교제이면보)

印度青年兩君 二十四日에出發

그동안에일정은이러하다 出發前에數三處에서講演

자뎐거로 세계일주의 장거를 거의 마치고 중국대륙(中國大陸)만을 압헤 가로두고서 방금 경성에 톄재중인 인도 청년 『쌤가란』량군의 강연은 중앙긔독교청년회와 및 본사의 주최로 십구일 밤에 대성황리에 원만히 마치엇슴은 초간긔보와 갓거니와 량군은 다못 자뎐거 세계일주라는 뎜으로만 장거일 뿐이 아니라 처디와 경우가 갓고 또 압헤 가른 희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씩씩한 청년으로 조선 영을 밟는 것이라는 그뎜에서 여러 방면의 인사로부터 혹은 개인 혹은 단톄 사이에 열렬한 환영이 답지하며 더욱 시내 각 학교의 초대 강연도 답지한터이오 량군은 이십사일 오전 열시에 서대문 밧 길을 통하야 북으로 향할 터인데 그동안 일뎡은 다음과 갓더라

第三日(二十日)土曜 午前十時半 延專에서 講演▲正午 協成神學에서 講演▲午後一時 내쉬氏 招待午餐▲同三時 紀念寫眞撮影於白氏邸▲同六時 食道園에서 歡迎晩餐宴

第四日(二十一日)日曜 午前十時 天道教訪問▲午後一時 本社及버고다公園見學▲同二時半 萬國基督教學生大會參觀▲同六時 크롬라氏 招待晩餐

第五日(二十二日)月曜 午前九時 培材高普에서 講演▲同十一時 齋藤總督訪問▲同十一時半 梨花學堂에서 講演▲午後一時 昌慶苑及秘苑拜觀▲同四時半 日本人側講演

第六日(二十三日)火曜 午前中 仁川見學

第七日(二十四日)水曜 午前十時 出發(北으로)

嗜眠病으로 一洲全滅

아불리가에서

아푸리카(亞弗利加) 동편에 잇는 전독일(獨逸) 식민디에는 목하 류행성 기면병(嗜眠病)이 창궐하야 『마두칸』주에서는 거의 전 인구가 이 병에 걸리고 다른 디방에서도 맹렬히 만연된다는데 영국(英國) 당국에서는 자세한 발표를 식히리라더라(나우엔뎐보)

感化院事件으로 文青聯盟奮起

특파원을파견하야

함남문천군명효반도(咸南文川郡明孝半島)에 잇는 조선총독부 감화원(朝鮮總督府感化院)에서는 동원이 설치된 이후 건긔반도 안에 잇는 산림(山林)에 대하야 대부료(貸付料)를 너무 비싸게 바듬으로 주민들이 매우 곤난히 지내다 함은 이미 보지에 보도된 바인데 이 사건의 내용을 충분히 됴사하기 위하야 이에 대한 선후책을 강구하기 위하야 지난 칠일 문천청년련맹(文川靑年聯盟)에서는 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특파원 세 사람을 선뎡하야 불일간 파견하기로 결의하엿다더라(문천)

在日勞働同胞 勞働組合創立

지난십삼일에

동경부본소구향도(東京府本所區向島) 부근 일대에는 우리 조선인 로동자가 근 삼천명이나 되는데 오는 날짜지 로동계 금의 리익을 도모할 긔관이 업서서 유감으로 생각하든 중 유지 오십여명이 지난 십삼일 오후 여덜시 향도 쳐디뎡(向島請地町) 팔십팔번디 남영우(南英祐)씨 방에 모되여서 동경 조선로동조합(東京朝鮮勞働組合)을 창립하엿다는데 래빈으로는

▲在日本勞働總同盟 附大觀▲東京朝鮮無産青年同盟會 金均▲東京朝鮮合同勞働組合 權正烈▲東京朝鮮勞働同盟會 朴炯采

동 제씨의 피갈는 열렬한 축사가 잇섯고 일월회(一月會)의 『굿게 단결하라 승리는 우리에게 잇다』라는 축뎐이 잇슨 후 폐회하얏다는데 강령과 위원 씨명은 아래와 갓더라

◇討議事項

宣言(略)

綱領(略)

◇主張

一、八時間勞働及一週間四十八時制度의 實施

一、最低賃銀設定

一、惡法撤廢

◇決議事項

一、메ー데ー의 一致的休業

一、經濟行動의 一致的協力

一、豫算編成에 關한 件

一、在日本朝鮮勞働總同盟加盟의 件

一、敎養問題에 關한 件

一、無組織勞働者에 關한 件

一、發會式에 關한 件

◇委員氏名

▲南英祐▲金納▲李相郁▲金朱燦▲吳章均▲李廷珪▲洪性祜▲李原喆▲金正國▲李演雨▲林榮▲崔良淳▲康水龍▲李雲洙▲申鳳燮

戰慄할殺人鬼 五十餘名慘害

『가리시아』의 『우오소베스』에서는 『모데카 란다우』라 칭하는 『루쿠크』란 자는 오십삼인의 살인범으로 데포되엿는데 그 자의 자백에 의하면 그 자의 손에 죽은 사람은 그 중에 승려(僧侶) 한 사람을 제한 외에는 모다 녀자와 어린아이들이라 하며 녀자들은 대개 마음것 롱락(弄絡) 하고 나중에 죽인 것이라더라(나우엔방송)

상놈에게 딸팔앗다고 門中이作黨暴行

당자와중개자를무수란타 구둘을빼고문짜지때여

해주서 변면동양리중지동(海州西邊面東陽里仲芝洞) 일백오번디 장정식(張丁植)이라는 사람의 집에서는 그의 일가 되는 동리(同里) 장성록(張成祿) 장운학(張雲學) 장상명(張相明)과 기외 한 사람이 떼를 지여와서 장정식의 로모 리씨(李氏)(六六)에게 무수한 폭행을 가하야 몸을 추우지 못하게 하고 그의 집 문짝을 짓부수고서 구둘장을 떼어 노코 오히려 이것도 부족하야 전긔 장정식과 그의 친뎨 래식(來植)을 무수히 구타한 사실이 잇는 바 이제 그 내용을 됴사한 바에 의하면 장정식의 형뎨는 극히 가세가 빈한하야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처디인데 음력 세말을 당하야 일도 할수 업게 되고 버리도 업슴으로 멧칠 동안에 쌀알한아 너허보지 못하고 지내다 못하야 그 처 굼어 죽을 경우라 그우에 칠순에 갓가운 로모로 하야금 그 처 굼게 는 할수 업는 터입으로 이리저리 생각을 내다 못하야 장정식의 다만 한 아인 딸자식 총각(總角)(八)을 남에게 주는 수밧게 업다 하야 그 동리에 잇는 김수업(金守業)(四二)이란 사람을 중매로 노하 적당한 처소를 구하든 바 김씨는 다시 자긔의 친구 긔재실(奇在實)이라는 사람을 새로히 지막골(芝洞) 김선문(金善文)(四)의 둘재며느리로 주기로 하고 오백원에 매매계약을 하고 십원을 말하얏스나 이것도 비싸다고 거긔서도 십원을 에누리하야 결국 사십원에 매매계약을 하고 현금을 바더다가 시량을 작만하게 되엿는바 김선문(金善文)은 본래 그곳 부호 리모(李某)의 여비(女婢)의 남편이라 이것을 안 장씨 문중에서는 상놈에게 딸을 주어 량반의 가문을 더럽힌다고 문중이 모히어 의론을 한 결과 전긔와 가튼 폭행을 한 것이며 그 후 에도 장씨의 형제와 중매자 김(金)긔(奇) 네 사람을 중지동 장재명(中芝洞張在明)의 사랑에 다 불러다 노코 무수란타하야 김수업은 두부에 중상을 당하야 의사에게 진단을 한 결과 약 삼주일의 치료를 요한다는 바 이 사실을 들어 그는 해주경찰서에 고소를 제긔하야 드듸여 전긔 폭행한 세 사람은 검거되어 엄중 취조중이라더라(해주)

醴泉衡平被襲事件 犧牲者追悼會

형평총본부에서

시내 와룡동에 잇는 형평사 중앙총본부(衡平社中央總本部)에서는 례천(醴泉) 형평분사 피습사건의 희생자인 고 김원준(故金俊元)씨의 추도회를 수일 전에 그 회관 안에서 거행하엿다더라

市民大會開催 明日公會堂에서

백열화한뎐긔료인하문데 조선공업협회의주최로써

경성뎐긔회사의 뎐긔료금의 감하를 운동해 오든 조선공업협회(工業協會)에서는 그동안 여러번 이나 총회를 개최하야 신중한 태도로 뎐긔료금인하의 당연함을 토의하고 긔보한 바 경성부와 요구됴건을 작성하야 데신당국에 와 뎐긔회사측과 회견 또는 하고 또 긔타 관계 각 단톄에도 찬동을 어더 가지고 목뎌실행에 착착 노력하여 오던 중 일반 부민의 찬동을 엇기 위하야 이십일일 오후 한시부터 경성공회당에서 부민대회를 개최하리라는데 동대회의 순서는 다음과 갓다더라

一、開會辭

一、座長選擧

一、電氣問題에 對한 經過報告

一、工業協會의 立場과 府民의 覺悟

一、原案에 對한 府民의 贊否

一、決議

一、實行方法

一、閉會

에서는 지난 십칠일에 북청소년련합회집행위원 고종현, 리의종(高宗鉉, 李義鍾) 두 사람을 불러 련합회 창립대회계 출을 밧지 아니하는 것을 엇지하야 두고나 갓스며 또 경관에게 반항하얏느냐 하고 함부로 구타하얏슴으로 일반은 경관의 횡포한 태도에 매우 분개한다더라(북청)

橫暴한北青警察

소년회간부를구타

북청경찰서(北青警察署)고등계

暴風맛난大信丸

미국긔선에구조돼

지난 일월 십칠일에 일본횡빈(橫濱)을 출범하야 북해도실란(北海道室蘭)으로 향하고 항해하든 중도에 폭풍우를 맛나 행방불명이 되엿든 신호아부긔선회사(神戶阿部汽船會社)의 소유 긔선 대신환(大信丸) 일천이백 돈은 십팔일 오후 네시경에 일본령토로부터 팔백사십해리(海里) 나 되는 태평양 가운데서 표류(漂流)하고 잇든 것을 향해하든 미국긔선 「자바 왈」호에게 발견되여 구됴되엿는데 승조원 삼십삼 명 중 태반은 굼머 죽고 선톄(船體)는 쇄여저 물이 만히 들어와서 운뎐이 불능하야 파선상태(破

本町署變死統計 餓死者만十四名

굶어죽은이는조선사람뿐

선상태)이엇다는데 승조원의 생존자는 열네명으로 간신히 구됴되아 『쎄 푸란시스코』까지 동행하얏다 하며 파쇄된 선톄와 십구명 의 사톄는 태평양남도(南島) 바다 면으로 표류하고 잇다는 동긔가 십구일에 일본조자(銚子) 무선뎐신국으로 왓다 더라(동경뎐보)

사람이 이 세상에 한번 나서 자긔의 천명을 다하는 사람도 만히 잇겟지만 그 중에는 별별 사정에 억매여서 련명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가지 수단을 취하야 자긔의 생명을 끈코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잇나니 지금 작년 대정 십사년도의 시내 본뎡서 관내에 재주한 자로 변사(變死)한 자의 통계를 보면 다음과 갓다

◇縊死者 朝鮮 男七 女二 日本 男五 女一

◇刃物自殺者 朝鮮 男一 女一 日本 男七 女二

◇飲毒自殺者 朝鮮 男六 女一 日本 男六 女一

◇痴情 朝鮮 男一 女一 日本 男一 女一

◇天災變死者 朝鮮 男三 女三 日本 男一 女一 外國 男一 女一

◇餓死者 朝鮮 男四 女四

◇過失飲毒者 朝鮮 男一 女二 日本 男一 女一

朝鮮 男一 女一 日本 男三 女一

米國에大雪崩 七十名慘死

일긔가치워서구호도곤난 눈이녹을봄새지기다리어

미국 『쌩검』 디방에는 큰 눈사태(雪崩)가 잇서 조난자(遭難者)가 만타는데 조난자 구호는 치위가 넘우 심하야 여간 곤난치 안흐며 구호대(救護隊)는 눈덩이와 문허진 가옥의 미터 생매(生埋)된 조난자를 파내기는 해동(解凍)할 째까지 단렴할 수 밧게 업다는데 조난자는 약 칠십 명 가량이나 된다더라(쌩검뎐보)

◇過失墜落死者 朝鮮 男二 女一 日本 男一 女一

◇過失溺死者 朝鮮 男一 女二 日本 男一 女一

賭博犯人으로 滿員된拘留場

매일멧명식잡아들여

구력정월설을 당하야 곳곳에 노름을 차려 정월보름날까지 이것을 청풍이라함은 고래로 뎐해 내려오는 풍속인바 평남강서경찰서(平南江西警察署)에 방금 류치된 범인을 됴사한 결과 십칠일 현재로 절도범인이 다섯명이고 그외 열다섯명은 모다 윳노리와 기타 노름하던 사람들인데 매일 멧 명식 검거됨으로 류치장이 좁아서 동경찰서에서는 매우 분망중에 잇다 더라(강서)

鍾路小火

이십일일 오후 한시에 시내 종로(鍾路) 사뎡목 일백륙십번디 최인성(崔仁成) 포목상 점안방골목으로 부터 불이 이러난 것을 즉시 진화하얏다는데 손해는 일백오십원 가량이라 하며 원인은 방금 됴사중이라고

月謝金안낸다고 十八名을黜學

개천공보월사금문뎨

평남개천군공립보통학교(价川郡公立普通學校)에서는 지난 십오일에 월사금 때문에 돌연히 십팔명의 학생을 출학하야 학교당국자와 학무형간에 문뎨가 되엿다는바 이제 그 자세한 사실을 들은즉 그 학교 삼학년 담임선생 조승주(趙升周)씨가 한 날동안의 월사금을 내이지 못하얏다는 것을 리유로 한 시간만 교수한 후 전긔 십팔명의 생도에게 그와 가티 단호한 처분을 하엿슴으로 출학당한 십팔명의 생도들은 눈물을 색리며 책보를 싸가지고 도라가서 월사금을 가지고 와서야 등교하얏다는 바 이에 대하야 동교가등교장(加藤校長)은 다음과 가티 말하더라

돌려보낸 생도들은 모다 집에 가서 월사금을 부형에게 타가지고 와서는 무단히 소비하고 긔한에 월사금을 가져오지 안는 고로 그것을 개준(改悛)토록 하야 그리하얏습니다 학부형 측에서는 엇더케 말하는지 몰으나 매양 모든 것을 엄밀히 감독하여 왓슴니다

韓氏篤志

시외고양군 벽제면 고양리(高陽郡碧蹄面高陽里) 일백이십륙번디 한성현의 궁상을 보고 국빈호 삼십륙호에 대하야 각각 백미 오승(五升)식을 논아주엇다 하야 근근 표창하리라더라

共產黨公判

삼월초순에열려

계리언(堺利彥) 일파의 일본공산당사건(共產黨事件)의 공소공판은 삼월 오일, 칠일, 구일의 사흘동안 공소원 상강(岡)재판장의 손에 개뎡되리라더라(동경뎐보)

高陽에發疹染病

여섯명중에두명은확실 西署消毒班出動

시외 고양군 송포면 덕이리(高陽郡松浦面德耳里)에는 발진지부스(發疹窒扶斯)의 환자가 여섯이나 발생하얏다는데 그중의 두명은 확실한 환자로 판명되어 소관 서대문서에서는 소독반(消毒班)이 출동하야 소독하는 중이며 일방으로도 환자의 발생한 집은 교통을 차단식이엇다더라

言爭끗테慘殺

잔학한일본국수회원

지난 십칠일 하오 여덜시 구분 일본 구주(九州) 박다(博多) 를 떠나 문사(門司)를 향하는 렬차 안에서 일대 참극의 참살사건이 이러낫는데 참살된 자는 복강시 박다빈 소로뎡(福岡市博多濱小路町) 청부업자 국수회(國粹會) 회원 고곡소졸(古谷小卒)(四〇)이라는 자로 작년 삼월경에 순정보선운동(純正普選運動)을 하기 위하야 동경(東京)、갓다가 보지신문(報知新聞) 습격사건에 가담하야 동디방재판소에서 징역일년 팔개월의 판결을 밧고 목하 공소 중인데 국수회 복강현본부에서 거를 써주지 아니하야 항상 복수(復

嗜眠病藥發見

목하 로농로서아쏘벳트련맹제도시(聯盟諸都市)에는 기면병(嗜眠病)이 류행하는데 병상(病狀)은 환자가 수주간식 잠을 자서 께이기가 곤난함으로 그 결과 병인은 쇠약해저서 사망자가 속출하는 바 수일 전에 일으런 「레닌그라드」에서 「니키친」박사는 이것을 전쾌식이는 약을 발명하엿다더라(막사과뎐보)

女衣一着發見

녀자로격투가난뜻 疑問船後報

긔보 ‖ 일본강산현천구군흑긔촌(岡山縣淺口郡黑崎村) 부근 바다에서 피투성이가 된 비인배한척을 발견한 동현형사과에서는 그동안 활동한 결과 그 배의 승조원은 일본장긔현상현군 인뎐촌(長崎縣上縣郡仁田村) 암뎐신차랑(岩田新次郎)(五二) 정촌학송(井村鶴松)(四一) 조선인 리량만(李良滿)(三三) 외 세명이 지난 일월 이일에 장긔현에서 석탄을 싯고 대판(大阪)으로 향한 뒤 소식이 업섯든 것이 판명되는 동시에 또 그 배안에는 녀자의 의복한 벌이 잇섯슴을 보면 도중에서 엇던 녀자를 태여가지고 그 녀자를 중심으로 격투가 생겨서 살인사건이 생긴 것으로 관찰된다더라

開城舊正活氣

유흥방면으로보아 활긔가잇서보인다

개성(開城)은 원래 정초가 되면 각처에 흐터저 잇든 상인들 비롯하야 모든 계급의 사람들이 다도라와서 다른 때보다 모든 방면에 번청한 긔분이 농후하든 중 근일은 요리집을 비롯하야 술집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식뎜은 매일 내만원이 되여 실도 번성하며 갑거운 새해를 마저서 즐거하는 긔분은 먼저 유흥방면으로만 보아도 활긔가 잇서 보히더라(개성)

仁川各町洞 總代會議

방역비문데로

부윤이 회의를 소집

긔보 ‖ 인천방역비잔금(仁川防疫費殘金) 문뎨에 관련되여 류두희(劉斗熙) 곽상훈(郭尙勳) 안긔성(安基成) 고일(高逸) 강복양(康復陽) 등 오씨가 박금이 십여일 이래 인천검사국(檢事局)에서 고초를 밧고 잇다 함은 이미 보도하얏거니와 전시민(市民)이 공공연하게 로동회원과 인천소년군(仁川少年軍)에 사용 함니다 조라함을 승인날인(捺印) 外지한 이사건을 인천경찰서(警察署)에서는 간섭하기 시작하야 공갈협박(恐喝脅迫)이라는 죄명을 부치여서 가택수색까지 하얏슴으로 이에 분개한 인천각뎡동리총대(各町洞里總代)가 시민대회라도 열어 긔회를 보와 이 의사를 무시하는 경찰과 긔타 관계자를 규탄코저 시민대회를 열라 회원 뜻 맛게 인천부도부리총대(總代)들은 십구일에 부청 회의실에 모여 이 문뎨를 토의하고져 하엿는데 마침 부윤(府尹)이 말하매 흥분되엿든 송리량을 진뎡시키고 이 사건을 희생된 제씨의 큰 잘못이 업스니 검사국에 관대한 처분을 하야 달라는 긔를 주장하엿스며 나종에 이번에 한번 승락하야 김상규(金相圭) 등 제씨가 일제히 『물론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제씨를 무사히 방면케 하야 달라함을 마지 아니 하나 그러나 무민 이 승락함을 무시하고 공갈협박이라고 두 죄한 사람들을 잡어간 당국에 대하야 그러한 요구를 하야도 아모 효력이 업슬것이라』 하매 부윤으로부터 무력하나마 이십일에 자긔가 검사국으로 가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말을 하겟다 하고 폐회하얏다더라(인천)

규탄코저 시민대회라도

... 단독으로 이를 반대하는 리재구(李宰求)씨가 개회벽두에 『이번 희생된 분인이 소집한 것이 『라』는 말을 한 후 방역비 잔금을 엇지하면

烏山驛構內에 頻頻한窃盜

밤이면훔처가

경부선 오산역(京釜線烏山驛) 구내에 싸어둔 곡물을 야경과 수직 을 함에도 불구하고 근일 빈빈히 도적하야 간다는데 지난 십륙일에는 동역 권환태 운송뎜에서 보관중이든 만주속(滿洲粟) 한 포대를 도적하야 버리엇고 십사일 밤에도 역시 환태운송뎜에서 보관하여 두엇든 현미 중 반 가마니를 일허 갓스며 지난 십칠일 오전 시경에는 삼광운송뎜에서 마러둔 현미 한 가마니를 엇더한 자 두 명이 도적하야 가라 함을 수직하든 사람이 발견하고 도적을 데포하라 하엿스나 도적은 도로 격투하여 가지고 도망 갓다는데 상식히고 어대도 당국에서는 목하 범인을 엄탐중이라더라(오산)

飲毒自殺三件

경긔도 안성군 읍내면 장긔리(安城郡邑內面場基里) 이백십구번디 어물상(魚物商) 김세춘(金世春)의 둘재 아들 김점득(金點得)(三○)은 지난 십칠일 오후 구시경에 자살(自殺)코자 양재물을 먹엇는데 그 원인은 전긔 김점득이 가 자긔 부친이 경영하는 영업은 항상 돌보지 안코 부랑한 곳에서 매일 세월을 보낸다는 것으로서 긔 부친 김세춘에게 야단을 듯고는 즉시 그와 가티 양재물을 먹은 것인데 생명에는 아모 관계가 업다 하며 또 지난 십삼일 오전 열한 시경에는 동면 동리(同面東里) 조정원(趙廷源)의 첩 강경숙(姜慶淑)(三七)이 가양재물을 먹엇다는데 그 원인은 전긔 조정원이가 또 다시 첩을 어더 가지고 백성려관(白城旅館)을 경영하는 문데로 서내외간 싸홈을 하고는

종명자

▲일전에 엇던 경찰서에서는 취됴 밧든 자가 가만히 잇다가 별안간 의자(椅子)채 넘거 저 엿다 ▲이것을 본 서원들은 『뎐간자』 (癲癇者)로 알엇더니 나종에 알고 보니 술에 취하야 쓰러진 것이엇다고 ▲그래서 서원들의 허리를 반은 셈이라고 ▲취됴 밧다 조는 것은 이 야기로도 드럿지 못하든 일이 아소 대청이 떠나 손이 나되는지▲인천리재구(李宰求)라는 친고는 방역비(防疫費) 문데로 공갈을 하엿느니 엇저느니 하고 돌아다니더니 인제는 가친 사람을 노아 달라고 하는 탄원서 청원 대기에 남보다 먼저 도장을 찍엇다나 ▲그 친구도 변덕이 죽을 못하는 모양

各團體消息

◇學生聯盟祈禱主日 이월이십일일은 즉 이월 데이일요일로 세계긔독교학생련맹기도주일(世界基督敎學生聯盟祈禱主日)이라 하야 경성학생긔독교청년회협회(京城學生基督敎靑年協會)의 주최로 그날 오후 두시 반부터 종로청년회관에서 각 학교 남녀 긔독교학생들이 모히어 긔도회를 한다고

◇中央禮拜堂日曜說敎 종로리 문중앙례배당에서는 이십일일 오전열한시와 오후일곱시에 아래와 가튼 연데와 연사의 일요설교가 잇스리라고

▲基督과靑年 (午前十一時) 邊成玉

▲예수를 바라보자 (午後七時) 金洪爾

◇三團體聯合研究班 시내관수동(觀水洞) 서울인쇄직공청년동맹(서울印刷職工靑年同盟)과 협우청년회(協友靑年會)와 공청년동맹(紙工靑年同盟) 등 삼단톄는 이십일일 하오여덜시부터 관수동 인쇄직공청년동맹에서 합연구반을 개최하리라는데 일반 회원은 만히 오기를 바란다고

◇獵銃所持者 권총(拳銃) 렵총(獵銃) 등 무긔를 가진 이에 대하야 일본인은 계출제(屆出制)이며 조선사람은 허가제(許可制)임은 세상이 다 아는 바인데 지금 시내 본뎡서 관내에 주재한 자로 권긔 무긔들을 가진 자들의 통계를 보면 다음과 갓다

人種別	獵銃	拳銃	杖銃
朝鮮人	六三	四	ー
日本人	八○九	七四九	二二
外國人	三一	ー	ー

그와 가티 양재물을 먹은 것이나 바로 달병원 박의사(八達病院朴醫師)의 치료를 바든 결과 생명에는 위험이 업다 하며 그 외에도 당디 보통학교 생도 박모(普通學校生徒朴某)도 자긔부친의 꾸지람을 듯고 친긔와 가티 양재물을 먹은 아이까지 잇다 더라(안성)

技競動運

三大野球團來征

日本球界는絢爛할터

今春六大學野球리구戰의 後를 니어서日本球界의大活況을呈할 것은慶應大學招聘의米國칼리포니아大學遠征과早大의『스탠포드』大學招聘과明大의마니라選拔팀招聘의大激戰을演할것인바 明治四十三年早大에게一敗地에 싸진스탠포드大學은巨人軍의中堅手를主로하야猛練習을繼續하고잇스며一方칼리포니아大學은스탠포드軍과伯仲의力量을持하야同軍은打擊에自信을가지고 잇다하니三大野球團의襲來로말미암아日本野球界는자못絢爛하리라하며日本에오기는來五月中旬이되리라더라(東京電)

納戶選手今春入隊

萬國올림픽大會極東大會를始하야今日本選手權大會에와宮選拔大會에오래동안四百과八百米에 新記錄을일것든東京高等師範의選手納戶德重은今春同校를卒하고歸鄕에入隊한다더라(東京電)

關西委員入京 平壤體育

西選育會委員林允祥氏는今般京平對抗蹴球戰에對한對策을하고자하야數日前入京하야典洞旅館에滯在中이라더라